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진주시 덕진구 인우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진주시 덕진구 민성동1로 55, 8층 805호(민성동, 오계아트타워)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6년 2월 3일(화) 제 3259호

안호영, 완·전 통합 선회 전북 재편 '급물살'

도, 농어촌활력재단 설립 착수 농촌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시동



안호영 '결단' 완주-전주 행정통합 찬성 선언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동영 통일부장관, 이성운 더불어민주당 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주완주 행정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안호영의원실>

반대 잡고 전주·완주 통합 공식화
정동영·이성운 등 공동 대응 나서
5급특재정 집중속 "전북소외위기"
완주 강화형 상생통합·군민 존중
단일 초광역권 구축 전북 경쟁력 확보

요구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통합 광역권인 '5급'에 정책과 재정이 집중되는 반면, 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국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북이 정부 지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만으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전북 스스로 발전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률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안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이성운 최고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등 전북 국회의원과 함께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완주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완주가 강화되는 방식의 상생 통합을 목표로 전주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통합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완주군민과 완주군의회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군간의 행정통합에는 시군회의의 의결 또는 시군 주민의 투표에 따라야 한다.

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전북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이자 교섭 단위

로 발전시키고, 초광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특단의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요구 사항도 언급했다.

그는 "전북에 대해 5급과 대등한 수준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예산 지원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 유치, KAIST 남원 AI 공공리얼캠퍼스 조성 등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과 관련한 과제들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을 단일 초광역권으로 만드는 방안과 관련해 "전북 14개 시·군의 칸막이 행정을 넘어, 전북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연대와 협력 중심의 행정 개편 방향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발기인대회 개최·비전·일정 공유
10개 시군 소멸위기 대응 강화
분산 센터 통합 지원 기능 일원화
농촌서비스·일자리·교육 등 전달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전북농촌융복합지원센터,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와 신규 전국 교육훈련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으면서 재단 출범이 가시화됐다.

전북도가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에 본격 착수했다.

도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 공공법인인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재단의 비전과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인구감소지역, 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농촌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약순환의 고리를 끊고 농촌경제사회 분야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절실했지만 그간 이를 전담할 기관이 부재했다.

이에 도는 현재 분산 운영 중인 전북

재단이 출범하면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공동체 육성 ▲지역 맞춤형 활력 사업 추진 ▲농어촌 일자리 창출 ▲전국 단위 교육훈련기관 운영 등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그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농어촌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농촌 현안 해결의 실질적인 실행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는 이번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2월 중 정관과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4월 도의회 출원 동의, 7월 임원 임명, 9월 설립 등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고창 양돈농장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올해 5번째...정밀검사로 확진
발생 농장 1만 8천마리 살처분
10km 방역지역 10농가 이동 제한

마리 돼지는 신속히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10농가 약 4만 2천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집중 소독, 정밀검사 등 확산 차단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군 한 양돈농장 폐사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이 확인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발생이며, 전북에서는 최초 발생이다.

도는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약 1만 8천

또한 공동방제단 46개단과 가용자원 93대를 총동원해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방역조치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양돈농가는 외부인 출입 통제, 소독 철저와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오염원 유입 차단에 각별한 주의뿐 아니라 이상 징후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JBT 전북타임스

전북타임스는 진실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다양한 의견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기사제보 063)282-9603
광고문의 063) 282-9601
신문구독 063) 282-9600

https://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5층

전북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강제개봉 단행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대여금고 12개 전수 조사 압류 7개 봉인 금고 강제 개봉 조치

압류 통보에 6천만원 자진 납부도

전북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된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대해 강력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도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확인된 12개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진 납부 권고에 응하지 않은 7개 봉인 금고에 대해서는 강제 개봉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34조(수색 등)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일부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대표적인 공간이다. 도는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확인 즉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실제 전주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납부를 미뤘으나, 대여금고 압류 통보 직후 체납액 6천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의 대여금고에서는 유가증권이 발견돼 추가 압류 후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는 이번에 개봉한 금고에서 발견된 귀금속과 유가증권 등 현금화 가능한 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추가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대여금고 압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 정



도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12개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전북도>

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대여금고뿐 아니라 가상자산, 신탁재산 등 가능해지는 재산 은닉 수법

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새만금·군산, 동북아 물류 허브로"

국제공항·신항만·철도 연계 트라이포트 물류 체계 기반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구축 'K-푸드 수출 전진기지' 육성



레스 등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과 대형 물류기업이 선택하는 서해안 물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새만금과 군산을 중심으로 전북을 동북아 물류 거점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관문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신항만·새만금국제공항·철도망을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새만금·군산지역을 글로벌 이커머스와 K-푸드 수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이같은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새만금과 군산은 항만·공항·철도를 동시에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지역이자 대한민국 물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대중국·대일본·동남아 접근성이 뛰어난 서해안 입지를 활용해 원자재, 중간재, 완제품을 아우르는 복합 물류 허브로 성장시킨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대중국·대일본·동남아 접근성이 뛰어난 서해안 입지를 활용해 원자재, 중간재, 완제품을 아우르는 복합 물류 허브로 성장시킨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물류는 단순 운송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데이터, 자동화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새만금·군산을 마아트·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물류 거점의 입지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만금·군산을 환해권과 동북아를 잇는 핵심 수출 입항로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류 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정청래, 조국혁신당 합당 공론화... "당원 뜻에 맡긴다"

최고위서 통합 추진 공식화 친명계 반발 일축 "결과 승복해야" "통합하면 승리, 분열하면 패배"

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다"며 "저는 오직 당심, 오직 민심만 믿고 가겠다. 당원의 명령에 따라가고, 당원의 명령에 따라 방향을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날 제왕적 총재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며 "지금은 당의 운명을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한다."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 수직적 정당이 아니다. 합당 문제든, 무순 문제든 당의 주인인 당

원결정한다"며 당원의 뜻에 따라 합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저는 당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다"며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그는 "통합은 힘을 합치자는 것이고, 분열은 힘을 빼자는 것"이라며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의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이다. 더 하는 뻔셈, 빼는 뻔셈, 휘어진 직선, 곧은 곡선과 같다"고 통합이 분열이라는 진 명계를 직격했다.

나아가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 분열한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하여 선거를 치르는 것이 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며 "2-3%의 박빙의 선거에서 부지

쟁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이 승리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상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호소하는 출마자의 심정을 심분 해야 하겠다"며 "한 표가 아쉬워 맘을 흘리며 뛰는 출마자들에게 2-3%의 지지율이 너무나 큰 비율이라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정 대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우도 힘든 싸움,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며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전북도, 농생명·바이오기업 '원스톱 밀착지원'

19개 기관 113개 사업 통합설명회

전북도는 농생명·바이오·식품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겪는 자금, 수출, 인력, 장비 활용 등의 애로를 한 자리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밀착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순한 사업 안내를 넘어, 현장에서 접수된 기업의 어려움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현장 중심 지원 방식이 핵심이다.

도는 2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도내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연구개발(R&D)부터 기술사업화, 국내외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장비 활용, 창업 지원까지 19개 유관기관의 113개 사업이 소개됐다. 기업들이 자신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된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행사장에 마련된 '분야별 현장 상담소'에는 14개 기관이 참여해 기업과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기업들은 경영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전문가와 직접 상담했고, 도는 접수된 사항을 관계 기관과 연계해 실제 지원사업으로 이어지는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밀착 지원의 성과로 지난해 지원기업의 평균 매출은 15.6% 증가했으며, 판로개척을 통한 직접 매출은 100억 원을 돌파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기업 성장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도와 진흥원은 설명회 이후에도 상시 상담 체계를 운영한다.

김은지 기자

道·시군, 전북사랑도민증 가입 확대 '총력전'

TF회의 열고 활성화 협력 가동 생활인구 반영 따라 교부세 대응 설 연휴 맞춰 가입·추천 이벤트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도는 2일 도청에서 관계 부처와 14개 시군 담당 부서장,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TF 회의'를 열고 가입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가 반영됨에 따라,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자의 체류 활성화가 시군 재정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공유하고 도와 시군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 방문객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펼치고, 2월 4일부터 19일까지 '전북사랑도민증 가입 및 추천인 이벤트'를 추진해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

과 상생발전 협약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병행해 가입 외연을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체감 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가입자에게는 '전북투어패스 1일권'이 제공되며, 도내 온라인 플랫폼 '생생장터', '참참'과 연계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생생장터'는 기존 5천 원 할인쿠폰 방식에서 농특산물 증정(1만 원 한도) 방식으로 개편해 가입 유인을 높였다.

도는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북연구원과 협업해 도민증

“완주·전주 통합 찬성 입장 열렬히 환영한다!”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분명한 전주·완주 통합 찬성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 외 의원 일동은 2일 발표된 안호영 의원 “전주·완주 통합으로 전북형 행정체계 개편 추진”에 의한 전주·완주 통합 찬성 입장문을 발표했다.

6·3 지방선거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국회의원)이 전주·완주 통합 추진 통한 전북형 행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안호영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

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통합 의사를 밝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안호영 국회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성윤 국회의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주·전주 통합 찬성 입장을 분명히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서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광역 행정 수요 확대라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나아가 정부는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

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지역 대표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통합 필요성 천명은,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민 불안과 갈등을 이유로 논의 자체를 회피해 온 정치권의 관행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향이다. 통합은 일방이 아닌 상생이어야 한다.

특히 행정 효율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전북특별자치

도, 양 시·군,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책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전주 통합이 5극 3특 전략의 성공적인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통합 교부세와 통합 지원 인센티브, 행정권한 확대 지원안을 마련해 공식 발표 하는 등 분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도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호소했다.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 외 의원 일동은 “안호영 의원의 입장 표명이 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공론의 장을 넓히고, 지역 정치가 미래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명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설 명절 종합대책 가동

민생경제 안정 4개 분야 12가지 과제 수립

전주시가 모든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5일부터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약 2주간 △시민 안전 편의 증진 △민생경제 활성화 △비상진료 체계 확립 △종합대책 시민홍보 등 4대 분야 12가지 추진과제로 된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먼저 시는 5일간의 설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각 분야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시는 만약의 시간·사고 및 재난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연휴 전 취약지역 및 시설물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영·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한 적치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전통신장 활성화를 위한 장비 행사 추진함으로써 내수경기 활성화와 진작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설 연휴 전 행정안전부·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물가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와 설 명절 성수품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 현장 지도 점검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 비상요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과 감염병 발생 대비 비상대응반을 운영함으로써 연휴 기간 빈틈없는 의료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휴 기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은 유선 안내 및 홈페이지, 스마트폰,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이외에도 시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6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행사’를 추진하고, 이렇게 모인 물품과 성금 등을 전주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함으로써 소외된 이

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 만드는 구상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설 명절 연휴 동안 귀성객과 시민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면서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매서운 추위가 예상되는데 갑작스러운 한파 및 대설에 대비하고, 전주를 찾는 귀성·귀경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설 명절 연휴 전주 공공운영시설 개방 여부와 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전주시 2026 설 명절 통합정보 안내 누리집’도 운영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 야행 안전·아름다움·쾌적환경 조성

체감형 야행 행진·고효율LED 조명장착

전주시민들의 야행에 관련한 야행산책이 안전과 아름다움이 결합한 밤거리로 바뀔 전망이다.

전주시는 고효율 LED 조명을 장착한 전기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쾌적한 야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해 야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길거리 문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시는 ‘23년부터 추진된 본격적인 조도 개선사업을 통해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있다.

시는 교통량이 많거나 보행자 통행이

잦은 구간, 범죄 취약지역, 주거 밀집지역 등 우선순위를 선정해 뒤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LED 가로등 7917등을 교체했다.

시는 LED 조명등 교체체를 통해 단기적 성과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정·환경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경우, 전체 사업 완료 시 연간 전기 사용량 약 6860MWh와 전기요금 약 15억원을 절감하고 3152톤 온실가스(CO2)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2026년 숨은세월 발굴 조사단 발대식’ 개최

공평과세 실현 활동 돌입 오는 4일~6일 조사단 역량강화 위한 직무연찬 실시

전주시가 올해도 탈루·은닉 세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숨은세월 발굴 조사단을 운영키로 했다.

시는 2일 시청 3층 부시장실에서 ‘2026년 숨은세월 발굴 조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전주시 세정행정의 핵

심 과제인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로,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세무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단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시는 지난해 숨은세월 발굴 조사단을 운영하며 취득세·재산세 등 주요 지방세 분야를 중심으로 탈루·누락 세원을 면밀히 점검해 왔으며, 이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등 의미 있는 세정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조사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세원 관리의 체계성과 행정 신뢰도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조사 분야를 더욱 세분화하고, 사전 안내와 자진신고 유도를 강화하는 등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세원 발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조사단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주요 지방세 분야별 조

사 사례 공유 △최근 세법 개정 사항 및 유의점 △조사 기법 및 실무 중심 교육 △우수사례 토론 등으로, 시는 이를 통해 조사단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조사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조사단이 더욱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돼 시민이 신뢰하는 세정행정의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안동시 공무원 노동조합 자매결연

‘실용’ 선택 양 노조 조합원 실익 중심 노동운동 실현

전주시와 안동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영·호남의 경계를 넘어 강력 한 ‘실용주의 연대’를 선포했다.

지난달 30일 전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경오)은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유철환)과 자매결연 협약을 전주시청에서 가졌다.

이번 협약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조합원 실익 중심의 노동운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 아래 추진됐다.

특히 이번 만남은 ‘혁신의 경로’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주시 노조는 지난 2021년, 독자적인 노조를 신설하는 도전적인 길을 선택한 이후, 오직 조합원의 권익과 실익에 집중하는 행보를 통해 단기간에 1560명이라는 조합원을 둔 제1노동조합으로 성장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안동시 노조는 최근 전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기존 상급단체 탈퇴 방안을 성공적으로 가결하며, 조직 전체의 체질을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는 ‘민주적 혁신’의 모범 사

례를 만들어냈다.

전주시공무원노동조합 김경오 위원장은 “전주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축적한 역동적인 ‘성장 DNA’와 안동시 노조가 보여준 압도적인 ‘혁신 에너지’가 만났다”며 “우리 두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운동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유철환 위원장은 “전주시 노조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궈낸 성과들은 안동시 노조가 나아가길 길에 큰 영감을 준다”며 “조합원의 뜻을 모아 성공적인 조직 전환을 이뤄낸 만큼, 전주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합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화답했다.

양 노조는 이날 우정의 증표로 각 지역의 대표 전통주인 이강주와 안동소주를 교환하며 서로의 혁신 성과를 존중하고 정취를 나눈다는 상생의 결의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시는 △조합원교육·연수 및 문화행사 상호 교류 △공무원 노동권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지역 문화·행사 교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지원 등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화재 예방, 명절 선물 문화로 확산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 주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적극 권장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응에 필수적인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조기 대피를 유도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서는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천장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택화재는 명절 기간 음식 조리과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평소보

다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설치 확대를 위해 SNS 홍보는 물론, 옥외 전광판을 활용해 명절 전·후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등도 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안전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박덕규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이번 설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작은 실천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원장 김귀정은)은 2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라면 200개를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전주함께라면’ 온기 채워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원장 김귀정은)은 2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라면 200개를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기탁된 라면은 휴먼시아숲속 어린이집 월아와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것으로, 효자4동에 설치된 ‘전주함께라면 기부함’을 통해 지역 내 고립 위기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전주함께라면 기부함은 도움이 필요한 고립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시와 전주시복지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주시 35개 동 주민센터에 설치돼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이끌고 있다.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은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으며, 이날 아이들이 직접 고사리손으로 라면을 준비해 기부함에 채워 넣으며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몸소 체험했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아이들의 소중한 참여가 ‘전주함께라면 기부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면서 “김귀정 원장님을 비롯해 월아와 학부모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겨울철 불특정다수 이용시설 피난로 확보 대책 추진

다중이용시설 피난로 확보 점검 강화

전주덕진소방서는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 안전한 대피 환경 확보를 위해 ‘겨울철 불특정다수 이용시설 피난로 확보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다중이용업소 등 인파 밀집 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특히 비상구와 피난 통로가 난방기기나 적치물 등으로 차단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피난로 관리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산후조리원과 고시원, 사우나, 영화상영관 등 총 134개소를 대상으로 비상구와 피난 통로 확보 여부



를 중점 점검하고, 이동식 난로 등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해 피난로가 훼손되거

/정소민 기자

경진원-SS리테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메밀 원료’·‘소스’ ‘반가공 식재료 납품’ 포함 B2B 형태 수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베트남 해외통상거점센터에서 (주)경진원(이하 경진원)이 유동·외식 전문 기업 SS리테일(SS Retail)과 마스터프랜차이즈(Master Franchise) 계약을 지난달 2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은 매장 운영과 함께 ‘메밀 원료’, ‘소스’, ‘반가공 식재료 납품’을 포함한 B2B 형태 수출 구조를 전제로 추진됐다.

마스터프랜차이즈(Master Franchise) 계약은 경진원이 지난해부터 베트남 해외통상거점센터에 전담 인력을 상주 배치하며 현지 기업 상담과 협의 대응 체계를 운영해 온 가운데 도출된 성과다.

경진원의 이번 성과는 도내 외식·식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로 연결되는 수출 구조 사례로 평가됐다.

현재 베트남은 외식과 가공식품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동남아 핵심 시장으로 하노이와 호찌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K-푸드 브랜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경진원은 이번 계약을 통해 앞으로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인 식자재 수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진원은 이번 계약에서 현지 시장 정보 제공과 파트너사 검증, 계약 협의 과정 지원을 수행하며, 현장 상황에 맞춘 신속한 대응을 뒷받침했다.

계약 체결에 의해 (주)경진원은 2026년 1분기 내 베트남 하노이에 메릴빈미집 1호점을 개점하고, 나트랑과 호찌민 등 주요 도시로 매장을 확대할 나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베트남 해외통상거점센터에서 (주)경진원이 유동·외식 전문 기업 SS리테일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메밀소스와 콩국수 등 밀키트 제품인 K-Market 등 베트남 현지 유통망 입점 논의도 진행됐다.

순여봉 경진원장은 “베트남 해외통상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기업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기공사협 전북도회 ‘사회공헌활동’

경로당 노후 전기시설 정비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이재수) 전기공사기업인 재능기부가 따뜻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졌다.

전기안전공사기업인 사회공헌은 지난달 30일 완주군 녹동경로당에서 경로당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보수 작업을 병행하며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안호영 국회의원, 완주군의회 성중기 위원장, 이재수 회장, 최병인 부회장, 이길환 조합 이사, 전주시 덕진구·완주군 협의회

회원 등 15여명이 참여했다.

이재수 회장은 “추운 날씨 지역사회에 대한 전기공사 업계 책임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전기공사기업인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공사기업인들은 이 외에도 ‘지등경로당’, 고산면 ‘상상경로당’을 방문해 무료 전기설비 개·보수 활동을 펼치며 지역민 위한 재능기부를 실천했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봄 배추 ‘꽃대오름’ 피해 최소화 주의 당부

생육 초기 저온 이어지면 현상 ↑… 무게·식감 ↓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봄 배추 재배 농가들의 꽃대오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 점검표를 제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꽃대오름(추대)’은 배추가 속을 채우기 전, 꽃줄기가 올라오는 현상이다.

꽃대가 생기면 속들이(결구)가 불량해지고 무게·식감이 떨어져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꽃대오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저온에 덜 민감한 봄 배추 전용 품종으로 ‘만추대성 품종’을 사용한다.

만추대성 품종은 △저온 민감도가 낮거나 △꽃눈을 만들 때 저온 기간·강도가 더 필요하거나 △꽃눈이 만들어져도

꽃대 자람이 늦어 꽃대오름이 늦게 되는 특성을 가졌다.

또 도입하려는 품종을 좁은 면적에서 약 2년간 시험 재배하며, 꽃대오름 안정성을 확인한 뒤 재배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

저온에 가장 민감한 시기로 온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보온용 터널, 난방기, 전열선 등을 설치해 밤 최저기온이 13도(°C)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기온이 10도(°C) 이상인 날이 약 1주일 정도 지속될 때 아주심기(정식)하고, 되도록 일찍 심지 않도록 한다. 또 모종 분얼이 5~6장 나왔을 때가 아주심기에 가장 적절하다.

아주심기 전에는 흑색 또는 투명 비닐을 덮어(멀칭) 토양 온도를 유지해 준다. 아주심기 이후에는 토양이 건조해 지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주고 적정 토양



수분을 유지해 뿌리내림과 생육을 돕는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기초기반과 육원충 과정은 “봄 배추 꽃대오름은 사실상 예방이 유일한 대책”

이라며, “만추대성 품종을 선택하고 모종 생산 시 온도 관리에 주의해 꽃대오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중기부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

25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

중기부는 ‘2026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2026.02.25.까지 모집한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사업화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탄소중립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은 기술 성숙도와 투자 여부에 따라 △기술사업화 △현장실증 △투자연계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총 17개 중소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민간 투자 연계 강화하기 위해 ‘투자연계형’ 유형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들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유형은 최근 3년 이내 탄소중립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거나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약 10개사를 선정해 ▷컨설팅 ▷제품 개선 ▷국내·외 집·인증 등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현장실증 유형은 국내·외 수요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현장 기술 검증이 필요한 수요기업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4개사를 선정해 현장 성능 점검, 제품개선·설치 등 실증을 기업당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 신설된 투자연계 유형은 기후테크 혁신기업과 직전 3년간 해당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3개를 선정해 ‘판로 개척’, ‘창업 보육 프로그램’, ‘전시회 참가’ 등을 컨소시엄당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mss.go.kr)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된다.

사업 신청은 ESG통합플랫폼(www.esg.kosmes.or.kr)을 통해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16기 입교생 모집

13일까지 창업아이템 혁신기술 등 42명 선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전북청창사) 16기 입교생 모집이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2026년도 전북청창사 입교생 모집 인원은 총 42명이다.

지원자격은 만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대표자로 사업장 소재지와는 무관하게 신청가능 하다.

입교생들에게는 최대 1억원 ‘사업화 자금’, ‘사무 공간’, ‘시제품 제작’, ‘교육’, ‘코칭’, ‘판로개척’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된다.

특히 ‘청년창업가’ 제도권 확대를 위

해 ‘경험창업자’ 선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경험창업자’ 경우 입교자격을 창업 후 7년 이내로 확대해 이들이 가진 자산과 노하우가 이어지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청년 창업기업 초기 사업화 성공과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해 딥테크·글로벌 심화과정을 신설해 서울/광주/경산에서 구분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과정만 제공한다.

심화과정은 최대 2억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청년창업사관학교 과정.

▷ 기본과정 : 청년 창업가 대상 ‘역량강화’, ‘BM수립’, ‘투자유치’ 운영



▷ 딥테크 심화과정 : AI, 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심층기술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 글로벌 심화과정 : 해외 시장 진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희망자는 오는 2026.02.13. 16시까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내용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및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을 활용하면 된다.

앞서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8년 개소 후 8년간 380개 우수 청년창업기업을 배출했다.

이를 통해 830명 신규일자리 창출과 46.8억원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지역대표 청년창업 플랫폼 자리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JB 든든 생계비 계좌’ 출시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최상의 고객 생활유지 서비스 제공 위한 ‘JB 든든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

출시된 ‘JB 든든 생계비 계좌’ 상품은 법령(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특약에 따라 월 250만원 한도 내 압류가 제한되는 생계비 보호 전용 통장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다.

특히 고객 최우선 생활유지를 위해 실명 개인 고객에 한해 1인 1계좌 영입점 또는 모바일뱅킹과 모바일앱을 통한 간편 가입이 특징이다.

또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4월 30일까지 ‘JB든든 생계비 계좌’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개설 및 유지 조건에 따라 총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출시된 ‘JB 든든 생계비 계좌’ 상품은 법령(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특약에 따라 월 250만원 한도 내 압류가 제한되는 생계비 보호 전용 통장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다.

이벤트 기간 내 누적 입금액 250만원 고객 중 1명을 추첨해 ‘생활지원금 50만원(기프트카드)’을 증정한다.

/김영태 기자

바이오진흥원, 두바이 식품박람회 참가…중동 시장 개척

MENA 시장 공략 본격화 품질안전성 등 집중 홍보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중동 시장개척을 위해 지난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두바이 식품박람회(Gulfood 2026)에 참가해 전북 농수산물 홍보관을 운영했다.

그 결과, 총 50만불 규모 수출상담과 20만불 규모 현장계약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Gulfood 2026은 식품 전반 및 대체

식품, 푸드테크 관련 서비스 분야를 포괄하는 중동 지역 대표 식품박람회로 약 129개국 5500개 기업(6000개 부스)이 참가하고 참가객 십오만명이 방문하는 대형 박람회 중 하나이다.

바이오진흥원은 “글로벌 환경 변화와 보호무역 기조 강화 상황에 현장 중심 시장개척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전북홍보관은 B2B 상담 중심으로 바이어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가격, 유통 조건, 인증 요건 등을 점검하며 실제 수출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집중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도내 농수산물 업체는 2개 기업으로, 아리울수

산(군산)은 박대·조기를, 옹고집(군산)은 소스류·장류·떡볶이 등의 제품을 홍보·전시하며 중동 및 세계 각국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상담에서는 중동 유통채널 납품을 위한 규격·라벨링 요구, 할랄·코셔 등 인증 관련 문의와 샘플 테스트 및 테스트 마켓 운영 제안 등의 후속 협의가 이어졌으며, 일부 바이어와는 샘플발송 및 테스트를 통한 거래 일자 논의 등 구체적 후속 일정도 확정됐다.

전북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참가를 통해 전북 농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 및 수출 신규 아이템·판매채

널 확대, 수출 유망 기업·제품 발굴을 통한 중장기적 소비층 확대, 우수 바이어·유망 기업과의 트렌드·네트워크·인사이트 공유 강화 등의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참가 성과를 바탕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맞춤형 수출 전략을 구체화하고, 전북 식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확보된 수출상담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바이어 초청, 사후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고교 입학 첫 걸음, 차분한 준비 돕는다”

전북교육청, 오는 21일 예비 고1 대상 고교생활 대입 길잡이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예비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준비를 돕는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1일 본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예비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고교생활-대입 길잡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

편과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고1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고, 고교 입학 초기부터 진로·학습·대입을 연계한 체계적인 준비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 △고교학점제와 과목 선택의 중요성 △2028 대입제도 개편 방향 △고교입학초기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학습·진로 설계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고등학교에서 진학지도를 담당하며, 대입 상담 경험이 풍부한 전일고등학교

김훈 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공신력 있는 대입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예비 고1 학생들이 고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학부모가 변화하는 대입 환경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공교육 중심의 진로진학 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4일 오후 5시까지 진로진학센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정혜민 기자

참석자 전원에게는 대입 관련 자료집 1부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공교육 중심의 진로진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믿고 자신에게 맞는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청렴문화 확산 동참 우수기관·팀 시상

교육감 표창·포상금 지급 육지원청, 우수 부안·정읍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는 최우수 군산학생교육문화관, 우수 교직원수련원·김제학생교육문화관이다. MZ 청렴 서포터스 활동 우수팀은 △최우수 클린A-Z(전주아중초 교사 장우원 외 5명) △우수 상도와무지개(동산초 주무관 장상도 외 7명) △장려 청렴레인저스(미래교육연구원 주무관 최지훈 외 4명), JB청렴턴 노력을 유도하고, ‘MZ 청렴 서포터스’를 운영해 미래세대와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시상은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 확산과 청렴 시책 추진에 우수한 청렴 역할을 보여준 기관(팀)을 표창해 청렴 활동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노력도 평가 우수기관은 6개 기관이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최우수 전주교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자유학기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개정 교육과정 안착 위한 현장 지원 체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2일 전주비전대학교 세미나실에서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지원단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자유학기 역량 강화 연

수’ 운영했다. 이 연수는 교육지원청과 지원단이 지역 특수성과 학교 여건을 반영한 ‘지역 중심 특색 교육과정’ 설계를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본권과 학교 자율과 실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성 함양 △자유학기에 컨설팅 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특히 교육지원청이 단위 학교를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자율시간과 자유학기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지역별 분인 토의를 통해 학교들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해소할 구체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다. 교육지원청과 지원단은 향후 학교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돕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과정

에서 겪는 행정적·교육적 부담을 덜어주는 ‘밀착형 멘토’로서 새 학기 교육과정 준비를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각 학교가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의 필요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의 역량을 강화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군산대, 배터리성능평가사 자격취득 프로그램 성료

이차전지 성능·안전 평가 실무 인재 양성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장민석 단장)은 지난달 30~31일 양일간 ‘동계 배터리성능평가사 자격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RE100 및 이차전지 산업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실습 중심 전문자격 과정으로 재학생 16명이 참여해 전원이 과정을 수료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박 2일 단기집중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이론과 실습을 단계적으로 연계해 운영했다. 교육 과정은 △이차전지 이론 및 진단 △배터리 성능평가 △재사용·재활용 분류 △전기 기초 △셀 제작 및 모듈 조립 실습 △자격시험 응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교육은 한국EV기술협회 교육장에서 진행돼, 셀·모듈·팩 단위 성능 검증과 시험 데이터 해석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중시

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배터리 제조와 평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직무 이해도를 높였다. 또 교육 과정은 동계 방학 기간을 활용한 단기 집중형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학기 중 수강이 어려운 전문자격 교육을 효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교육 마지막 날에는 온라인 자격시험을 통해 학습 성과를 점검했고, 참여자 전원이 과정을 이수했다. 배터리성능평가사는 이차전지의 성능·수명·안전성을 진단하고 잔존가치를 분석하는 전문 인력으로, 전기차·ESS·시험기관·리사이클링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은 직무다. 국립군산대 RISE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배터리 성능·안전 평가 전문 인력 양성과 미래 모빌리티·에너지 전환 분야 취업 경쟁력 강화, RE100 및 이차전지 산업과 연계한 인재 공급 기반 확대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국립군산대 RISE사업단은 앞으로도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달 30~31일 양일간 ‘동계 배터리성능평가사 자격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차전지·미래 모빌리티·에너지 전환 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군산대학교 해양생물자원학과 권봉오 교수가 ‘제9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그는 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간 예정인 이산화탄소 제거 포집 활용 및 저장(CDR·CCUS) 방법론 보고서 습지 분야 주저자(Lead Author)에 선정됐다. /정혜민 기자

우석대학교, 이주민 생활지원 전문인력 배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군장대학교와 공동 운영한 ‘이주민 생활지원사 1급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달 31일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국제관에서 열린 수료식에는 황태규 미래융합대학장과 양향숙 군장대학교 기획처장을 비롯해 양 대학 관계자와 수료생 55명이 참석했다. 이번 과정은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노동·학업 전반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달 3일 개강했다. 교육과정은 상호문화 이해와 외국인 노동 정책, 유학생 지원 제도, 심리·정서 지원, 법·제도 이해, 현장 대응 실습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됐다. 특히 이번 과정은 국내 최초로 자격과

실무를 연계한 이주민 생활지원사 과정으로 2024년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공동 기획으로 시작됐다. 2급 과정은 지난해, 1급 과정은 올해 운영됐다. 과정 설계에는 우석대학교 다문화센터 장인 이승미(아동사회복지학부) 교수와 군장대학교 국제교류원 여학센터장 양소숙 교수가 참여해 차별화된 전문 교육 과정을 개발했다. 황태규 미래융합대학장은 “이번 1급 과정 수료를 계기로 교육과 자격이 실제 일자리로 연결되는 구조를 본격화하고 있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한 이주민 지원 전문인력 양성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료생들은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지원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정혜민 기자

겨울철 낙상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낙상사고원인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눈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넘어지는 사고 발생

근육 경직으로 인해 빠른 대처가 어려워짐

낙상예방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외출 전 빙판 상태 확인

평소보다 10% 천천히 걷기

가급적 장갑을 끼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걷기



군산시, 일상 속 걷기 실천 유도 '워크온' 걷기 챌린지 운영

군산시보건소(소장 문다해)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WalkOn)'을 활용한 월별 걷기 챌린지를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시민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군산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도전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걷기를 쉽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도록 월별 미션 형태로 운영해, 자발적인 참여 확대와 걷기 습관 형성을 돕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아울러 챌린지 참여자는 걷기 목표 달성 시 추첨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기 부여를 통한 건강관리 실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워크온' 앱에는 군산시 공식 커뮤니티 가입, 챌린지 응모 등의 메뉴가 있으며, 월별 챌린지 세부 일정과 운영 내용은 앱 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장애인 자립 카페 개소...경제적 자립 지원

익산시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형 카페의 문을 열었다.

2일 익산시청 1층 로비에 장애인 바리스타가 근무하는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116호점'이 정식 개소했다.

'아이갓에브리씽'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공공형 직업훈련 모델이다. 이번에 문을 여는 익산시청점은 전국 116번째 매장이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상생의 공간으로 운영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피드림'이 운영을 맡게된다.

이곳에서 근무하게 될 장애인 근로자들은 전문 바리스타 훈련과 철저한 사전 직무 교육을 마친 인재들이다. 이들은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사 내 카페 개소가 장애인 자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12개 읍면동 대상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

군산시가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2월 3일 옥구읍을 시작으로 11일까지 12개 읍면동에서 실시한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재배 기술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작물 생육과 병해충 발생 양상의 큰 변화로 농업인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순회 교육은 식량작물 분야를 중심으로 △3일 옥구면·개정면 △5일 옥서면·성산면 △6일 대야면·회현면 △9일 서수면·미성동 등 총 12회에 걸쳐 기술보급과 담당 지도사들이 진행한다.

순회교육과 별도로 원예작물 분야는 재배농가 및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화관에서 2월 내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일정은 △25일 고추 △26일 포도 △27일 딸기 등 작물별 전문 교육으로 운영된다.

실용 교육에서는 지역 적응성이 우수한 벼 품종 소개를 비롯해 병해충 예방, 농약 안전 사용 등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박홍순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실용 교육을 통해 최신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기후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저출생 극복 '앞장'

청년 1인 소상공인 농어업인에 '출산급여' 지원...양육 부담 ↓

정읍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위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시는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8~39세 청년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 여성에게는 본인 출산급여 90만원, 남성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급여(여성)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에 한해 지원하며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등 1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남성)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의 '배

우자 출산휴가급여'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이 경영 공백과 인력 채용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읍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내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신동진' '수광1' 최종 선정 '해품' 올해까지만 매입

군산시가 202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위한 품종으로 '신동진'과 '수광1'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매입품종 선정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인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여건에 적합한 고품질 쌀 생산과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산시는 품종별 지역 재배 적응성, 시장 선호도, 수량성 및 품질 안정성, 병해충 저항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관계기관 및 읍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매입품종을 결정했다.

선정된 '신동진'과 '수광1'은 군산 지역의 기후와 토양 여건에 대한 적응성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균일한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동진'은 밥맛이 우수하고 재배 안정성이 높고 그동안 공공비축미곡 품종으로 농가 신뢰를 받아온 군산시 대표 품종이다.

'수광1'은 기존 최고품질 벼 '수광'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낱곡과 병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에 개발된 품종으로, 우수한 밥맛과 품질들을 유지하면서도 벼알이 잘 떨어지지 않고 비현미마를

병에도 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발아율은 '수광'보다 낮고 도정 수율은 높은 편으로, 호남평야지 재배에 알맞은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또 다른 후보군이었던 '해품'은 2026년까지 군산시 공공비축미곡으로 매입될 품종이지만, 2027년부터는 정부 보급종 생산이 중단될 예정으로 향후 종자 공급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이번 매입품종 선정에서는 제외됐다.

군산시는 이번 품종 선정을 통해 공공비축미곡 품질을 높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새벽 강설에 제설 '총력'

출근길 불편 최소화 안전사고 예방 온 힘

정읍시가 2일 오전 내린 강설에 대응해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눈이 시작된 2일 새벽 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적설량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 대기 체제를 유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

이번 눈으로 도로 결빙과 미끄럼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시는 주요 고갯길과 교통량이 많은 관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제설 차량을 집중 투입해 도로 소통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시청 전 직원이 담당 구역별로 투입돼 낙상 사고 위험이 높은 인도와 이면도로의 눈을 직접 치우며 시민 안전을 챙겼다.



앞서 시는 겨울철 기습 폭설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지역 내 63개 노선, 총연장 408km 구간의 원활한 제설을 위해 15톤 덤프트 13대 등 제설 장비를 점검·배치했으며, 연화칼을 650톤, 소금 2200톤, 친환경 제설제 150톤 등 충분한 제설 자재를 확보해 둔 상태다.

이학수 시장은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제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봄철 산불방지 대응 본격 돌입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익산시가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2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산불방지 발대식'을 개최하고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5월 15일까지 운영되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가동한다.

해당 기간 산림과 전 직원이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 각 읍면동에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총 107명을 배치해 예방·감시와 조동 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산불감시원과 산림재



난대응단은 산불 예방 결의문을 낭독하며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시는 산불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산과 천호산, 시대산, 당제산, 용화

산, 일치봉에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을 중심으로 예방 홍보와 계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물 '설 맞이 기획전' 운영

오는 12일까지 할인 판매

익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다.

익산시는 오는 12일까지 익산물 누리집에서 '설 맞이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행사 기간 사과와 배, 고구마, 혼합 선물세트 등 익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익산물 회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설 기획전 품

목은 최대 20% 할인이 주어지고, 구매 금액의 5%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또한 전국 무료배송을 지원해 명절 선물을 보다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획전은 실속 있는 명절 선물 준비로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익산물을 통해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잇는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2일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한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대로 괜찮은가'를 통해 폭행과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을 제안했고, 정상철 의원은 '위험이 된 아동, 보행자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를 통해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승범 의원은 '철보물테마 유원지의 재창조'를 통해 물놀이 시

설 확장과 민물고기 생태전시관 전환으로 사계절 운영 가능한 생태교육관광지 조성을 촉구했고, 이복형 의원은 '시·군 통합,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를 통해 정주시·정읍군 통합으로 절감된 재정이 읍면에 환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상임위원회별로 3일부터 9일까지 2026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며,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대한민국 육상 투척 유망주, 익산서 담금질

지도자선수 등 총 87명 방문

대한민국 육상의 미래를 이끌 유망주들의 담금질이 옮겨올 익산의 운동장을 뜨겁게 달궜다.

2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육상 투척 미래 국가대표 동계 전지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훈련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육상연맹이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성호준 전임감독을 비롯한 지도자 12명과 포환·원반 등 종목별 국가대표 후보선수, 청소년 대표, 꿈나무 선수 75명 등 총 87명이 참여했다.

훈련 기간 국가대표 후보선수단뿐

아니라 전국의 우수 학교팀들도 함께 했다. 경남체고·충북체고·보성초 훈련팀 등이 합동 훈련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기술을 교류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

아울러 익산시는 공인 육상경기장과 웨이트 트레이닝장을 개방하고, 익산체력인증센터를 통해 체력 측정을 지원하는 등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육상의 미래를 이끌 유망주들이 익산에서 안전하게 훈련을 마쳐 뜻깊다"며 "앞으로도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전지훈련 최적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구암동-건국우유, 건강음료 지원 협약

군산 구암동 행정복지센터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돌봄 취약 가구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건국우유 군산대리점과 '2026년 건강음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운영되는 '사랑가득 건강음료 지원사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우리동네 안부살림 건강음료 지원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총 61세대의 저소득 독거노인 및 돌봄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건국우유 군산대리점은 주 3회(월·수·금) 음료 배달을 통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실시한다. 특히 위험이 있는 돌봄 취약 가구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건국우유 군산대리점과 '2026년 건강음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런 협약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운영되는 '사랑가득 건강음료 지원사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우리동네 안부살림 건강음료 지원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총 61세대의 저소득 독거노인 및 돌봄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건국우유 군산대리점은 주 3회(월·수·금) 음료 배달을 통한

/군산=지송길 기자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 협력 나서

(사)기본사회와 협력 지역형 기본소득 모델 '바람연금' 구축 본격화

부안군은 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 발굴과 실행을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군민의 보편적 삶을 보장하는 '부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정책 연구와 사업 기획, 실행 단계까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부안군과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기본사회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기본사회 정책 사업 공동 기획 및 추진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연계 △기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군이 추진하는 '부안형 기본소득 전환전략 방안'은 부안형 푸드플랜을 통한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바람연금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수익의 기본



소득 환원을 핵심 축으로 한다.

부안형 바람연금은 2.46GW 규모의 서남권풍력발전단지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제도로, 자연자원을 군민의 공동 자산으로 전환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역형 기본소득 모델이다.

부안군은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이익이 지역과 군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을 위한 반값등록금 지원, 군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군민안 전보현, 주거·교통·돌봄 등 필수 생활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생활 보장

중심'의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안군은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정책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 차원의 경험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본사회 정책을 다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실제 적용해 온 (사)기본사회와 협력함으로써 그 성과와 노하우를 부안군 실정에 맞게 실현하고 다음에 나갈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사단법인 기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부안군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어 군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갯벌 이달의 새' 흰꼬리수리 선정

생태계 보전 캠페인 전개

고창군이 2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흰꼬리수리를 선정하고, 겨울철 고창갯벌을 찾는 맹금류의 생태적 가치와 갯벌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흰꼬리수리'는 넓은 날개폭과 강력한 발톱을 지닌 대형 맹금류로, 참수리와 함께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를 대표하는 최상위 포식자다. 갯벌과 해안 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의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적으로는 관심종(LOI)이지만 국내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흰꼬리수리는 주로 북동아시아와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 번식한 뒤, 겨울철 남하해 우리나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월동하는 철새다. 서해안의 갯벌과 간척지, 하구 지역은 흰꼬리수리에게 먹이 섭취와 휴식을 제공하는 핵심 서식지로, 매년 겨울철 관찰이 이어지고 있다.

고창갯벌에서는 갯벌식물원 인근 바위섬 일대를 중심으로 매년 2~3개체의 흰꼬리수리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육지와 연결된 고창갯벌은 풍부한 먹이자원과 안정적인 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어, 흰꼬



리수리와 같은 대형 맹금류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여러 지역에서 흰꼬리수리의 번식 사례도 보고되며, 이 종은 단순한 겨울 철새를 넘어 우리 생태계 내에서 서식 범위를 회복하고 있는 상징적인 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흰꼬리수리와 같은 최상위 포식자가 고창갯벌을 지속적으로 찾는 것은 갯벌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앞으로도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철새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3월까지 폐렴구균 예방접종 집중기간 운영

김제시는 오는 3월까지 폐렴구균 예방접종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과 같은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과 중증폐렴 예방을 위해 성인 국가예방접종으로 실시하고 있다.

접종 대상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 번도 맞지 않은 65세 이상(1961.12.31.이전 출생자)이며,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을 1회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시는 집중기간 동안 올해 신규접종 대상자인 만 65세 및 접종자를 중심으로 개별 접종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며, 해당기간 동안 전국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접종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예방접종 집중기간을 활용해 아직 접종하지 않은 고령층은 가급적 빨리 예방접종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부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제수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3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군 관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농산물 주요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설 선상품과 제수용품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 등이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해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 표시면 비치 여부 등이다.

김진재 농촌활력과장은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산지 표시가 익숙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표시 방법 안내와 관련 제도 설명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재)고창군장학재단

2026년 새해 첫 이사회 개최

고창군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역군이 될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재)고창군장학재단이 지난 30일 2026년 새해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사 및 감사 15명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5년 기탁금 사용승인(안) △2025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2026년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논의해 심의했다.

재단은 올해 고창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장학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초·중·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등록금 지원과 중·고등학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1인 1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특히 올해는 고창 출신 상위권 대학생과 관내 중·고등학생을 1:1로 연결하는 '대학생 학습코칭 멘토링 사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지역 출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직접 학습 노하우와 진로 고민을 나누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서적·교육적 유대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서울·전주 장학숙 역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고창 인재들의 수도권 및 전주 지역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고창군장학재단 이사장은 "소중한 기탁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지역의 더 많은 인재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새만금지평선소식 '지면에서 영상으로'

정보취약계층 배려 시정소식 정규방송 송출

김제시는 시청 소식 전달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월부터 새만금지평선소식지를 3분 내외의 영상 소식지로 제작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지평선영상소식'은 올해 처음으로 시청 소식지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정규방송 채널에 편성하는 사례로, 시민의 일상에서 시청 소식이 보다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기존에 글로 접하던 정보를 영상으로 풀어내고 복잡한 정책은 핵심만을 담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영상은 LG헬로비전 TV 정규방송 채널을 통해 송출됨은 물론, 관내 경로당 IPTV를 비롯해 유튜브와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특히, '새만금지평선영상소식'은 수어 통역을 병행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시민과 시각·청각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까지 아우르며 시청 소식의 문턱을 낮췄다.

앞서, 새만금지평선소식은 지난해

'보이스아이'시스템을 처음 도입, 스마트폰 QR을 활용해 소식지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함으로써, 고령층과 시각장애인으로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정 소식은 일반 시민이 아닌 모든 시민의 것이어야 한다"며 "영상 소식지와 수어 통역 병행은 정보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김제시 행정의 진심을 담은 시도"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뢰받는 시청 소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반부패 청렴정책 설명회' 열어

기관장 직접 주도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

고창군이 2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소개, 2025년 고창군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와 분석, 2026년 반부패 청렴정책 중점 추진사항 및 각 부서별 협조사항, 우리 군 부패취약분야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고창군수 주재로 2026년 고창군의 반부패 청렴 정책과 추진 목표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고창 실현이라는 비전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부패 청렴교육 및 반부패 법령 준수여부 자체점검 강화 △군민행복 민원상담사 등 군민 권익보호 제도 안내 등이었으며,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부패발생 차단을 위해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군민이 느끼는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해 청렴캠페인 확대는 물론 주요대민업무 관련 청렴서한문·청렴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 시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산림재난대응단 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산림재난대응단 40명, 산불감시원 49명)과 관계 공무원 등 107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산림재난대응단장의 결의문 낭독과 함께 산림재난분야 종사자들이 산림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으며 주요 임무와 근무수칙 등 산림재난 예방 활동을 위한 직무 및 안전교육 등이 진행됐다.

특히 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

비해 산불방지대책본부(2026년 1월 20일~5월 15일)를 설치해 읍·면과 상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등 산불 예방 및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산불방지대책본부 추진 결과 2025년 산불 예방·대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에도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의 소중한 산림과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는 책임감으로 산림재난 대응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추진

김제시는 지난달 29일 2026년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농업인단체 및 농기계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과 운영계획, 농번기 주말근무, 임대농기계 현장배달서비스, 임대료 등 2026년 김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올해는 자체재원 12억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장비와 농업인의 수요에 맞춘 활용도 높은 트랙터, 굴삭기, 진압기 등 농업기계 36종 130대를 심

의회를 거쳐 구입할 예정이다.

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68종 1,630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마다 임대 건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년에도 농번기가 시작되는 봄철과 가을철에 농번기 주말근무를 추진해 농기계 사고예방 홍보책자와 야간달서서비스, 임대료 등 2026년 김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승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을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변산면 화망소통대화, 고흥사랑기부동행 계속

부안군은 지난달 29일 변산면에서 열린 2026년 결실창래 군민과의 화망소통대화 자리에서 다양한 주제의 참여로 고흥사랑기부가 이어지며 행사가 뜻깊게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변산면 새마을부녀회(부녀회장 김갑숙) 회원 일동이 200만 원을 기탁했으며, 변산면 수락마을 출신 김소울 변호사도 200만 원의 고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또한 변산면사무소 직원 일동이 1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을 향한 마음을 보였다.

이번 기부는 주민 단체와 출향 인사, 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고흥사랑기부제가 지역 안팎의 구성원을 잇는 매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부안군은 이번 기탁을 통해 고흥사랑기부제가 다양한 참여 주체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기부금은 향후 군민 복지사업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부담 완화 주거 안정 도모

김제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1억3천250만원을 투입해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가운데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최대 2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새로운 보증자리를 마련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중 장기 임대주택에 임주를 희망하는 자다.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은 장기임대주

택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며, 신청 및 접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오는 9월부터 건축과에 신청 가능하며,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저소득계층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순창군, '기본사회'와 농촌 선도 모델 시동

순창군(사)기본사회 업무협약 인구감소 대응 지속가능 모델 추진 정책 기획·발굴 등 6개 분야 협력

순창군은 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순창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지방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새로운 사회 설계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기본사회 순창, 새로운 100년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강남훈 명예이사장, 정근승 부이사장(이사장 직무대행), 함효건 사무총장, 송중운 정책연구소장 등 사단법인 기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6가지 핵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 기본사회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을 시작으로, 정책사업 기



순창군은 2일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순창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섰다. <사진=순창군>

획 및 추진, 정책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정보 교류,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연계, 정책 성과 공유와 확산 등 전방위적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순창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실험이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본사회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정책적 전문성과 연구역량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주목된

다. 최영일 군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현실 속에서 순창군이 먼저 길을 열고, 먼저 설계하며, 먼저 실행하는 선도 지역으로 나서겠다"며 "농어촌기본소득 등 순창이 그동안 시도해 온 다양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기본사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기본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2026년 신규 평생학습동아리 발굴

110만~200만원 강사비 지원 신규 기준 동아리 25개 내외

남원시가 시민의 자발적인 학습 문화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평생학습동아리를 모집한다.

평생학습동아리는 성인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만나 정해진 주제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지역학습공동체'다. 남원시는 매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학습동아리를 발굴하고, 학습활동에 필요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모집 규모는 25개 내외 동아리로, 동아리별 110만원에서 최

대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규 동아리와 기존 동아리로 구분되며, 운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다.

신청 접수는 9일까지 남원시평생학습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서류 및 현장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20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남원시 교육체육과 관계자는 "학습동아리는 평생학습의 '꽃'이라고 표현할 만큼 배움으로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의 집결체다. 우수한 학습동아리 발굴과 지원을 통해 배움이 나눔으로 확장되는 선순환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겨울방학 특별 융복합 예술교육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은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겨울방학 특별 교육 프로그램 '2026년 우당탕탕 미술관'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리산 권역 문화예술 교육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남원·임실·순창 지역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 간 문화예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미술·무용·음악이 결합된 융복합 예술교육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학년별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저학년(1~3학년)은 2월 4일부터 6일까지, 고학년(4~6학년)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각각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저학년 과정은 첫째 날 '미술관을 따뜻하게' 프로그램을 통해 겨울 미술관을 온기로 채우는 색감 놀이 상상활동을 펼치고, 둘째 날 '겨울놀이 탐험'에서는 눈과 얼음을 주제로 한 탐험 놀이를 진행한다. 셋째 날 '매콤달콤 미술관'에서는 떡볶이와 김밥 만들기를 통해 오감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운영한다. 고학년 과정은 저학년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가비는 재료비를 포함해 1만 원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인문학 기반 시·문리교육 진행

완주군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가 이달부터 단순한 기술 습득의 차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을 사고와 성장의 대상으로 탐구하는 '인문학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교육은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는 힘'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생성한 이미지는 예술인가, 단순한 데이터의 조합인가?', '기계가 만든 결과물이 나의 고유한 감정과 서사를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가?'와 같은 철학적 쟁점을 두고 열린 토론을 벌이게 된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윤리 교육 역시 현장감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저작권 침해 논란부터 딥페이크 오남용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과의 책임 소재 등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상황극과 '벨런스 게임' 형식을 도입해 풀어나간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시각화한 '나만의 인공지능 동화책'을 제작, 이를 큐알(QR) 코드로 변환해 수련관 내 '책다방'에 상설 전시할 계획이다.

서유진 아동친화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완주군 청소년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성숙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의의회, 오늘부터 11일까지 올해 첫 임시회

제208회...9일간 조례·안전 심의 '새만금반도체 이전' 건의안 상정

완주군의의회(의장 유의식)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제208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선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과 각종 안건 심의하는 한편,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각종 조례안 그리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예정돼 있어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3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경

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이주갑 의원이 대표발의로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및 삼성의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이 상정된다.

해당 건의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전략산업을 새만금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삼성전자의 과거 대국민 약속 이행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5일부터 10일까지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진행된다.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부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주갑 의

원이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주제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문화원 이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의 적정성과 공공성 확보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김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의료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과 성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소음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최대 300만원 보상

군, 농업 해수 피해 보상 지원 면적·작물·피해율 등 종합 선정

순창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피해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금은 농작물의 피해 면적, 작물별 소득자료, 피해율 등을 종합해 산정되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피해면적이 100㎡ 미

만이거나 피해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적으로 경작이 금지된 지역이나 이미 보상은 작물의 재피해 등도 지원이 제한된다.

피해신청이 접수되면, 읍·면사무소는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군은 피해액을 산정해 매월 말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상사업이 야생동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읍·면에서는 피해 사실이 신속히 접수되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설 맞이 '행복순창물' 할인 이벤트

신규가입자 2000원 포인트 적립 전 품목 최대 3000원 할인 혜택

순창군은 설 명절을 맞아 군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행복순창물'에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행복순창물'을 검색하거나, 공식 홈페이지(happysmall.com)를 통해 접속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할인 행사는 순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삼례문화예술촌, 명예군민 장석원 작가展

기획전 '꿈을 그리는 소년 밥장' 관람객 참여·작가 도슨트 운영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1전시관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장석원(밥장)의 명품 일러스트 기획전 '꿈을 그리는 소년 밥장'이 6월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완주군 명예군민인 장석원(밥장)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전으로, 희망과 악몽, 미래와 트라우마, 기대와 후회, 선망과 그림자'라는 부제를 통해 꿈속에서 마주하는 듯한 장면들을 그림으로 풀어낸다.

전시에서는 밥장의 대표 일러스트 작품 90여 점을 소개하며,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나만의 일러스트 그리기', '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 등 체험 공간을 마련해 창작과 사유가 이루어지는 전시 콘텐츠를 선보인다. 전시 기간 중에는 작가 도슨트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밥장은 "새롭지 않다면 보아드릴 것 도 많지 않다"며 "그림은 각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그림과 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잠시 일상의 속도를 늦추는 시간을 제안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1마을 1자율방재단' 구축 주민 주도 재난 대응 체계 가동

남원시는 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마을 1자율방재단'을 전 마을에 전면 구축 완료하고, 지난달 28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상이변 심화로 자연재난이 빈번하고 대형화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방재활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본 사업은 전북도가 중점 추진 중인 '재난안전분야 강화 특수시책'과 연계된 핵심 과제로, 지역 단위 자율방재역량을 높이는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남원시 518개 전 마을에 자율방재단 구성이 100% 완료됐으며, 마을별 지역 여건과 현장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율방재단은 고령층·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 보호체계 강화, 마을 단위 주민 대피체계 정비, 재난 발생 시 실시간 상황 전파 및 초기 대응 활동 등 현장 중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시는 방재단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방재단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교육·훈련 및 장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참가자 모집

제96회 춘향제...내·외국인 대상 수상자 홍보대사 위촉 활동 지원

남원시는 제96회 춘향제를 맞아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참가자를 이달 2일부터 오는 3월 27일까지 모집한다.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는 춘향의 가치와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국적과 언어, 문화의 경계를 넘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춘향의 매력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된 춘향제 대표 프로그램이다.

특히 제96회 춘향제에서는 '춘향의 맛, 세계를 매혹시키다'를 주제로 글로벌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춘향을 조명

하고, 참가 대상과 무대를 국제적으로 확대한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해외 국적자도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모집 요강은 남원시 누리집(namwon.go.kr)과 춘향제 공식 홈페이지(chunhyang.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회에서는 전통적 아름다움은 물론 춘향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이해, 글로벌 감각과 소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예선심사를 거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는 오는 4월 30일 열리는 제96회 춘향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된다. 전문 심사위원단이 전 과정에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수상자는 남원시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돼 국내외 문화행사 참여와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는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96회 춘향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남원 광한루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노인일자리 발대식 개최

공익형·역량활용 8개 사업단 1,500명 어르신 활동 지원

(사)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지회장 김영기)가 최근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의회 의장, 노인일자리 참여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완주군노인회는 2026년 공익형·역량활용 8개 사업단에 1,500명의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참여자 대표의 선서문 낭독과 사업개시 선포를 통해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힘찬 출발을 공식화했으며, 안전한 활동, 성실한 참여, 즐거운 봉사를 주제로 참여형 퍼포먼스를 열어 참가자들의 결의를 다지는 상징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2026년 노인 일자리 발대식 예회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의회 의장, 노인일자리 참여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완주군>

적 시간을 마련했다.

김영기 지회장은 "이번 발대식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공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보람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참여자들의 열정과 봉사 정신에 감사드리며 어르신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임실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임실군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오는 3월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생생카드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영농과 가사를 병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문화·여가·이미용·체육활동 등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5세 미만(1952.1.1.~2006.12.31.)의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시 농협체크카드로 1인당 13만원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의료기관과 유희, 사행성 관련 업종을 제외한 전복자치도 내 전 업종에서 사용하면 된다. 심민 군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의 복지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통합지원협의체 출범 통합돌봄사업 성공추진

진안군이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진안군 통합지원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진안군 통합지원협의체'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은 2026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지원 등을 촘촘하게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통합지원협의체는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구성됐으며, 군수를 위원장으로 총 15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 협의체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평가를 비롯해, 통합돌봄 시책 추진과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지역 특화 서비스로 발굴한 △안심주거 환경개선 △영양식사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3개 영역 8개 사업을 중심으로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진안군민의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과 함께, 통합돌봄 대상자의 누수 없는 발굴·지원 체계 구축 및 대군민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택시협동조합, 600만원 상당 방한 장갑 400세트 기탁

무주택시협동조합은 지난 1월 30일, 방한 장갑 400세트(6백만 원 상당)를 무주군에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역 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김현섭 무주택시협동조합 대표는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외출하실 때라도 장갑을 착용하시면 건강을 지키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며 "앞으로도 무주군민은 물론, 무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편리한 이동 수단이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률 90.5%

면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처 확대 노력

장수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 결과 신청률 90%를 넘어섬에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며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며 빠른 신청 속도를 보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20,922명 가운데 18,926명이 신청을 마쳤으며 신청률은 90.5%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 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북 장수군을 비롯해 전국 10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4:6 비율로 2년간 약 800억 원 이상 재원을 투입한다. 장수군은 2월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된 뒤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2월 27일 최초 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기본소득이 특정 지역에만 소비가 집중되지 않도록 생활권 단위 소비를 유도해 읍·면 전반에 걸쳐 경제 효과가 확산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이와 함께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자 부족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과의 상생협약 등을 통해 면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처 확대에도 나섰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이 확정된 이후 인구가 대폭 증가했는데 전입자는 811명, 전출자는 161명으로 인구 순증은 약 650명에 달해 1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21,015명으로 집계됐다. 약 2개월 만에 인구가 약 600명 이상 늘어난 셈으로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이례적인 수치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실제 인구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치매 환자 'GPS 배회감지기' 지원

현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 위치·비상 호출 기능 등 임실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노인의 신속한 발견과 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GPS형 배회감지기 이용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시계형으로 대어 가능하며, 보호자는 현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치매환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심존 범위를 설정해 치매환자가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려 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위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호출 기능도 제공된다. 아울러, 배회감지기 신청 시 임실경찰서와 연계하여 치매환자 지문 등 사전등록으로 치매안심장비를 구축하여 치매환자 실종 위험성을 이 중으로 예방하고 있다.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640-3382)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식중독 예방 위한 민관 합동점검 실시

일반음식점 422개소 대상 잔반 재사용 여부 등 살펴

무주군이 오는 6일까지 지역 내 422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도내에서 식중독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관내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다. 무주군은 식품위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으로, 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3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

을 현장에 투입한다. 점검반은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 과정 전반에 걸친 위생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 예정으로, 특히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조리·보관하는 행위 여부, △식재료 냉동·냉동 시설의 온도 관리 기준 준수 여부, △잔반 재사용 여부, △출처가 불분명한 무표시 식재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중증자 건강진단 시행 및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이행 상태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봄철에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에도 힘을 쏟는다. 개인위생 관리 요령과 올바른 식품 취급 방법을 교육하고, 영업자가 스스로 위생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 점검표'와 '식중독 예방 수칙 포스터'를 현장에서 직접 배부할 계획이다. 손경화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장은 "식중독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무주군민은 물론 관광객이 안심하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반 사항이 가벼울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계도 위주로 지도하겠지만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온라인 쇼핑몰 '장수물', 설맞이 이벤트 추진

최대 40% 할인 혜택 제공 여기에 지역상품권 chak 카드에 충전 후 모바일 결제로 구매할 경우 추가 10% 할인 혜택이 적용돼 최대 40% 상당의 실질적인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수물에서는 장수사과, 한우 세트, 꺼떡떡 등 신선한 농축산물은 물론 한우떡갈비, 유과, 부각, 식혜 등 남녀 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홍삼, 즉류, 꿀 등 명절 선물로 활용도가 높은 건강식품도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행사 기간 동안 장수물 전 회원에게 전품목 25% 할인 쿠폰이 제공되며 구매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혜택도 함께 운영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2026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생 모집

실질적인 영농 역량 강화 초점

임실군이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을 받을 교육생 모집에 나선 가운데 실질적인 영농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에 본격 나선다. 군은 오는 23일까지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에 필요한 기초영농교육을 받을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오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진행되며,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을 비롯해 농산물가공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관내 주요 농업 시설에서 현장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농업에 새롭게 진입한 신규농업인과 귀농·귀촌 예정자를 대상으로, 영농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 영농기술과 최신 농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초기 영농 과정에서의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과 실제 영농 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강의를 강화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이 영농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각 과정은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며, 실제 영농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이고 밀도 높은 교육으로 추진, 영농 전반에 대한 기초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신청은 임실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각 과정은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며, 실제 영농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이고 밀도 높은 교육으로 추진, 영농 전반에 대한 기초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신청은 임실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대표 캐릭터 '빠망', 명예공무원 8급 승진

진안군 대표 캐릭터 '빠망'이 명예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5년 4개월 만에 한 계급 승진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붉은 망아지를 형상화한 캐릭터 '빠망'은 2020년 9월 17일 진안군 명예 공무원 9급으로 임용된 이후, 각종 축제와 행사 현장은 물론 군정 주요 소식과 정책을 군민 눈높이에 맞춰 친근하게 전달해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6년 2월 2일자로 명예 공무원 8급으로 승진했다. 특히 이번 승진은 2026년 '붉은 망아의 해'를 맞아 더욱 의미를 더한다. 붉은 망아지를 형상화한 '빠망'은 올해의 상징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으며, 진안군의 활력과 도전, 성장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존재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올해를 '빠망의 해'로 삼아 군정 홍보와 관광 콘텐츠 전반에 빠망의 상징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빠망'은 오프라인 행사뿐 아니라 온라인 홍보 콘텐츠와 군 공식 유튜브브인 '빠망TV' 등을 통해 딱딱할 수 있는 행정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며 군민은 물론 관광객과 젊은 층의 호응을 이끌어 왔다.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진안군을 알리는 또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평가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정부 햇빛소득마을 조성 대응 전국 최초 추진단 꾸리

진안군이 정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발맞춰 주민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진안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군은 2일 군청 강당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마을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단 발대식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마을공동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500개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진안군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이경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인허가 관련 행정부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승화기술 등 전문가



진안군은 2일 군청 강당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마을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발대식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비롯해 한전,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 중간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꾸려졌다. 이를 통해 마을단위 사업 추진 시 인허가, 금융지원, 전력계통 확보 문제 등을 윈스톱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이미 지난 12월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관내 27개 마을이 신청하는 등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워 만큼 2월 중 마을을 단합회를 거쳐 협동조합설립을 지원하여 3월로 예상되는 사업 공모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과격하 농촌 경주어건 조성 보상을 지원한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관내 1년 이상 된 빈집 또는 6개월 이상 된 공가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및 수선비용으로 최대 30백만원을 지원해 임차인(주거취약계층, 신혼부부, 청년, 농촌유학생 등)에게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주민 및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신축·개축·재축·중축·대수선 등의 소요비용을 저금리(2%)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신축 최대 2.5억, 중축·대수선 1.5억 원 용자 가능하며 취득세 감면(최대 280만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올해 장수군 사업량은 12동으로 오는 20일까지 건축물 소재(예정)지가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장수=최진수 기자



섬진강다슬기마을, 임실군에 설 맞이 '사랑의 백미' 기탁

지난달 29일, 임실군 강진면에 위치한 (주)농어업회사법인 섬진강다슬기마을(대표 손기술)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백미(20kg) 20포를 기탁했다.

섬진강다슬기 마을의 이번 기부는 명절마다 잊지 않고 이어져 온 정제적인 나눔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섬진강다슬기마을의 이번 기탁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 기부 문화 확산의 귀감이 되고 있다.

손기술 대표는 "명절이면 더욱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산서교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 산서교회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산서면사무소에 1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산서교회는 매년 꾸준히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올해 전달된 100만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계획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산서교회 신동실 목사는 역시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호 산서면장은 "매년 변함없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어주는 산서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전달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주)KCC, 완주군에 성금 3,000만원 쾌척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내 종합화학기업 ㈜KCC(대표 이사 정몽진)가 새해를 맞아 완주군에 이웃사랑 성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

2일 완주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문병원 공장장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명규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기탁은 ㈜KCC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KCC는 매년 정기적으로 성금을 전달

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외계층 지원에 힘써왔으며, 기업의 감성을 살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전달식에 참석한 문병원 공장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려운 주거환경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국내 종합화학기업 ㈜KCC대표이사 정몽진(가운데)가 새해를 맞아 완주군에 이웃사랑 성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

에스제이바이오, 무주요양병원에 마스크 4만장 기부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

㈜에스제이바이오는 지난달 28일 무주군립요양병원에 '싱그라미 마스크' 4만 장(1천4백만 원 상당)을 기부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독감과 폐렴 등 동절기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힌 신항철 대표는 "신생 병원이지만 지역사회에 크나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

는 무주군립요양병원에 마스크를 기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마스크가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의 쾌유와 종사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시에 자리한 ㈜에스제이바이오는 2024년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무주군에 마스크 3만 장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는 대표적 기업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에스제이바이오대표이사 신항철(가운데)이 무주군립요양병원에 마스크 4만 장을 기부했다



진안군사무관승진자3명, 장학금 500만원 전달

진안사랑장학재단은 2일 군청 강당에서 사무관 승진자 3명이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달자는 지난 1월 7일 자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한소영 농축산유통과장, 이세민 성수면장, 정애경 건강증진과장이다.

이들은 전달식에서 "공직 생활의 보람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역량을 키워 진안을 빛낼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이에 진안사랑장학재단 전춘성 이사장은 "매년 기쁜 일마다 나눔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하다"며, "보내 주신 소중한 마음이 아이들의 꿈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이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고창군장학재단, 새해 장학금 기탁 이어져

(재)고창군장학재단이 새해에도 지역인재 육성 열망으로 장학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5일간 기탁된 장학금은 총 600만원으로, (유)일신건설 조봉균 대표가 100만원, 고창군 선주협회가 100만원, 고창군 착한가격업소 회원 일동이 200만원, 고창농촌관광연구회가 2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기탁자들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

이 학업에 전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 기탁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고 싶다"고 뜻을 전했다.

(재)고창군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에게는 꿈을 키우는 든든한 힘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더욱 충실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익산시 영등2동, 한부모가정 등 40세대에 다이로움카드 전달

설 명절을 앞두고 익산시 영등2동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펼쳐졌다.

영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한두련·유방용)는 2일 한부모가정 등 40세대에 '사랑의 다이로움카드(10만 원권)'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명절을 앞두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이웃 간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다이로움 지원을 통해 각 가정이 명절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경연 흥부골 아영 발전협의회장, 식료품꾸러미 57상자 기부

남원시 이경연 흥부골 아영 발전협의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새해 복(복)꾸러미 57상자(한가씩 1백만원)을 기부했다. 이경연 발전협의회장은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되는 복꾸러미는 떡국떡, 곰탕, 누룽지 등 다양한 식료품으로 구성됐으며, 아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맞춤형복지팀이 1일 1가구 소포행정과 병행하여 가정을 직접 방문, 설 명절 안부를 확인하며 전달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인사]
- 농촌진흥청 인사발령 (2026년 2월 1일자)
 - 고위공무원(전보)
 - 연구정책국장 방혜선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고병구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 김남정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이상재

겨울철 운전시 블랙 아이스 예방법

항상 안전거리 확보하고 서행 운전 하기

급출발 및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 금지

미끄러졌을 경우,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 조작하기

브레이크 여러 차례 나누어 밟기

스노우 체인이나 스노우 타이어를 사용하기

〈一事一言〉



전북 벤처펀드 1조 돌파 - 성장 사다리를 놓다

김관춘
주필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수도권에 서는 최초로 누적 벤처펀드 1조 원을 돌파했다는 낭보가 새해 벽두에 날아들었다. 도내 기업가들 에게 희망을 전한 이러한 소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 다. 수도권 중심으로 굳어져 온 대한민국 투자 지형에서 지역이 스스로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 냈 다는 점에서, 이는 전북 경제의 체질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더욱 주목할 대목은 이 펀드가 '장부 속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고용 창출과 매출 증대, 기업 이 전과 성장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이어나지며 지역 산업 생태계의 '희 망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이다.

그동안 지역 기업들은 기술력 과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도 자금 조달의 벽에 가로막혀 번번이 도 약의 기회를 놓쳐 온 했다. 전북의 벤처펀드는 바로 이 구조적 한계 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반도체 검 사 장비 전문기업 ㈜아이에스피 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전북에서 태동한 이 기업은 도 펀드 20억 원을 포함해 총 5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술 고도 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가 '생존 자금'이 아니라 '신뢰의 신호'로 작용해 후속 투자를 끌어 내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이 다. 이는 전북 펀드가 단순한 지 원책이 아니라 성장의 사다리로 기능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투자의 낙수효과가 고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분명하다. 이차전

지 전문기업 에너버배터리솔 루션(주)은 도 펀드 15억 원을 바 탕으로 총 40억 원의 투자를 유 처해 완주군에 공장을 설립했고, 직원 70명 중 50여 명을 지역 인 재로 채용했다.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이 지역 청년의 일자리로 응 답한 셈이다.

이는 벤처펀드가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청년 유출을 막는 현 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더 나아가 추가 투자 유치를 통해 전북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은 지역 산업의 미래까지 함께 그리 게 한다.

전북 펀드의 힘은 지역 기업에 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도권 기업 을 전북으로 끌어들이는 자석 역 할도 특특히 하고 있다. 그린바이 오 기업 ㈜광세가 전북 펀드를 마 중물 삼아 분사와 공장을 익산 국 가식품클러스터로 이전한 것은 상징적이다.

15억 원의 도 펀드를 포함해 총 8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이 기 업은 전북의 산업 인프라와 정책 적 지원이 결합될 때 기업 이전이 라는 결단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을 보여줬다. 이는 전북이 더 이 상 '지원만 받는 지역'이 아니라 기업이 선택하는 투자처로 인식 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벤처펀드의 궁극적 성과는 기 업공개(IPO)로 이어질 때 완성된 다. 차량 보안 솔루션 기업 ㈜페 스카로의 코스닥 상장도 전북 투 자 생태계의 저력을 증명하는 결 정적 장면이다. 군산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둔 이 기업은 10억 원

의 도 펀드를 시작으로 총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마침내 상 장에 성공했다. 연구소에서 시작 된 혁신이 자본시장에서 평가받 고, 다시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 환으로 환류되는 구조가 현실이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주목해야 할 점은 전북 벤처펀드가 산업 구조 고도 화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그린 바이오, 차량 보안 등은 모두 국 가 전략 산업이자 고부가가치 분 야다. 전북이 이들 산업의 실증 과 생산, 연구의 거점으로 자리매 김할 수 있다면 지역 경제는 단 순 하청 구조를 벗어나 기술 중심 성장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 이 는 중장기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 (GRDP) 확대와 재정 자립도 제 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벤처펀드는 지방정부 정 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지렛대 역 할도 한다. 행정의 선제적 투자 결정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이끌 어 내고, 이는 다시 정책의 지속 성을 담보하는 선순환을 만든다. 전북의 사례는 '지방정부가 과연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오 랜 질문에 실증적 답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 벤처펀드의 성과 는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심리 적 효과'에서도 확인된다. 그동안 지역 창업가와 청년 기업인들 사 이에 깊게 자리했던 "좋은 기술 이 있어도 결국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는 체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전북에서도 충분히 투자받 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경험과 사례

가 축적되면서 도전의 문턱이 낮 아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 는 자산이자 지역 혁신의 토양이 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대 학과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협력 으로 확장될 때 전북은 투자-기 술-인재가 선순환하는 자립형 산업 생태계를 갖춘 지역으로 도 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분명하다. 1 조 원 펀드라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 유치부터 성장, 상장 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투자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투자 이후의 경영·기술 컨설팅, 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촘촘히 연결될 때 펀드의 효과는 배가된다. 아울러 지역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투자 절차 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 고, 민간 자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전북 벤처펀드가 일회성 정책 성과에 머물지 않고 지역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을 때, 1조 원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는 전북만 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지역 경 제 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 돼야 한다.

사 설

전주·완주 통합, 안호영의 결단이 연 돌파구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오랜 교착 국면에 마침내 균열이 생겼다. 그 동안 통합에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 장을 견지해 왔던 안호영 의원이 공개 적으로 통합 추진을 선언하며 전면에 나선 것이다. 지역 정치의 이해득실을 넘어 전북의 미래를 먼저 고민한 결단 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 다.

안 의원의 입장 변화는 단순한 태도 전환이 아니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수년간 찬반 대립과 감정의 골 속에서 제자리걸음을 반복해 왔다. 특히 완주 지역을 대표하는 3선 중진 정치인의 반 대는 통합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 다. 그런 안 의원이 통합을 직접 선언했 다는 사실 자체가 이 논의의 무게중심 을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다. 통합의 실패를 가를 핵심 열쇠를 쥔 인물이 스 스로 문을 열고 나온 셈이다.

이번 결단의 배경으로 안 의원은 수 도권과 5대 권역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 가 발전 전략 속에서 전북이 처한 구조 적 위기감을 분명히 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권 통합 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북만이 제자리 에 머무는다면 국가 자원 배분과 미래 성 장 전략에서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이다. 이는 정치적 수 사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진단이며 지 역을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면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정동영 의원이 기자회견 내내 '안호 영의 결단'을 반복해 강조한 것도 이러 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통합 논 의를 새로운 국면으로 끌어올리기 위 해서는 반대 진영의 핵심 인물이 스스 로 방향을 틀었다는 상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의 선택 은 개인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 결정 이자, 전북 전체를 위한 책임 정치의 모 습이다.

물론 과제는 남아 있다. 완주군민과 군의회와의 우려와 반발을 어떻게 설득 하고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균형과 소외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특히 '군민이 바 라지 않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했던 과 거 발언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진정 성 있는 소통과 설명이 반드시 뒤따라 야 한다. 결단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 고 공론화와 속의 과정 속에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언의 의미 는 분명하다. 전주·완주 통합은 더 이상 특정 단체장이나 일부 정치인의 과제가 아니라, 전북 정치권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의제가 됐다. 안 의원의 결 단은 통합 논의를 다시 현실의 궤도로 올려놓았고 더 늦기 전에 선택해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

한편으로 이번 결단이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소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 기와 속도 또한 중요하다. 통합의 당위 가 확인된 지금, 통합 이후의 비전과 구 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며 도민의 판단을 구하는 책임 있는 후속 행보가 이어져 야 할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치적 결단은 언제나 비판을 동반한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란 박수받는 선택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안 의원의 통합 선언이 전 북 도약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이 제 공은 지역사회와 정치권 전체로 넘 어갔다. 더 큰 전북을 향한 논의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

문 화 재 열 전



진안 수선루 (보물 제2055호)

- 분류 - 유적건조물, 누정
- 지정일 - 2019년 12월 30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산 57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 창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윤리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원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6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원지사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가난한 사람에게 / 정 호 승

내 오늘도 그대를 위해
창밖에 등불 하나 내어 걸었습니다.
내 오늘도 그대를 기다리다 못해
마음 하나 창밖에 걸어 두었습니다.
밤이 오고 바람이 불고

드디어 눈이 내릴 때까지
내 그대를 기다리다 못해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 내린 들길을 홀로 걷다가
문득 별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인 약력 : 1950년 경남 하동 출생.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 원을 졸업했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 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청성대'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 예에 단편소설 '위령제'로 각각 당선됐다.

1979년 첫시집 '슬픔이 기쁨에게'를 출간했다. 제3회 소월시문학상, 제10 회 동서문학상, 제12회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시집 '별들은 따뜻하다'와 수필집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장편소설 '서유에는 바 다가 없다' 등이 있다.

푸른하늘을 지키는 작은 실천

작은 실천이 늘어나면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063)282-9601 신문구독 -063)282-9600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 “전력을 다해 무주형 기본사회로”

황인홍 무주군수



생활인구 300만 시대 향한 체류형 관광 전략 가속 태권도를 중심으로 K-스포츠 거점도시로 도약 군민 기본권 보장 확대...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강화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정주 여건 대폭 향상

무주군은 올 한해 ‘심사역전(深思力踐) 깊이 생각하고 전력을 다해 실천한다’의 자세로 ‘무주형 기본사회’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군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확충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관광자원과 생태·문화를 아우르는 체류형 콘텐츠를 확장해 ‘K-관광도시 자연특별시 무주’의 저력을 보여준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편집자주)

야간관광으로 3백만 생활 인구 손질
무주군은 ‘생활 인구 3백만 시대’를 목표로, 올해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태권브이랜드(2017.~2026.)’, ‘생태모험공원(2019.~2026.)’, ‘향로산 산림복지단지(2020.~2027.)’ 등 주요 관광자원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야간관광과 생태·문화가 결합한 체류형 콘텐츠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진행될 ‘1시간 1생활인구 특화사업’은 무주의 생태·전통 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야외 관광 콘텐츠, △숙박형 트레킹, △미식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다시 찾고 싶은 무주’의 기반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권도-K-스포츠 융합으로 성장동력 확보
무주군은 ‘태권도’를 무주만의 차별화된 성장동력으로 삼아 ‘태권도시’로 도약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2026.~2029.)’,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 추진(2024.~2029.)’ 등이 뒷받침해 줄 예정이다.

또한 ‘태권브이랜드 연계 관광 활성화(2022.~2026.)’, ‘태권마을 준공·분양(2026.)’, ‘태권도 국제 융합 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태권도’를

무주군의 대표 관광·지역 문화 콘텐츠로 각인시킬 방침이다.

이 외에도 마라톤 등 30여 개 국내·외 대회 유치, ‘트레일러닝(Trail Running)’ 등 산악 스포츠 활성화, 지역 특화 스포츠 인재 육성에도 주력해 ‘K-스포츠의 중심, 무주’의 저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군민 기본권 보장 및 맞춤형 복지 확대
무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권 보장 확대에 나선다.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가정환경 모니터링 등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학습 지원과 방역, 운동 교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저소득층과 장애 군민의 자립을 위해 직업 기능을 배양하는 등 자활근로 사업을 지원한다. 전체 인구의 39.6%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돌봄·일자리 체계를 강화하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비와 목욕비를 지원하는 등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제공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LPG 용기 시설개선’ 등 생활밀착형 에너지 복지 확대, ‘행복콜택시 운행’ 등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안정적인 삶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안전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군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사전 예방형 안전 환경 구축과 △민원 수 있는 식품·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심혈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 확대, 자연 재해 계절·단계별 대응체계 구축에 힘을 기울인다.

생애주기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평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군립요양병원(125병상, 인공신장실 12병상)을 기반으로 노인성 질환자·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인터뷰 황인홍 무주군수

“군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약의 발판을 놓을 것”

황인홍 무주군수는 “군정의 방향이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을 때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무주가 될 것”이라며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들을 확충하고 서로 연계하는 포용과 상생의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은 행정이 책임지고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나아갈 것”이라며 “모든 희망이 앞찬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약의 발판을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세계 태권도 성지를 이룬 저력이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반기 중에는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치매안심 병동(41병상) 의료기관 인종 지정도 신청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생활환경 개선, 군민 삶의 질 높여
무주군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노후 정수장 정비 등 민고 마시는 물 기반을 확충하고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던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등 다음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력을 높일 계획이다.

‘전주-무주 고속도로’,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 사업 등도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 등과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도·국지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성-적상(국도 19호선) 4차로 확장’, ‘무주 무풍-김천 대덕(국도 30호선) 2차로 개량’, ‘실천 심곡-두길(국도 37호선) 도로 시설 개량’에 공을 들이는 한편, ‘대전-무주-남해 철도망 구축’에도 힘쓴다.

/무주=최의호 기자